

 교육부				<h1>보도자료</h1> <p>2019. 12. 11.(수) 배포</p>	
보도일	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				
담당과	예산담당관	담당자	과장	이영찬 (☎ 044-203-6033)	
			사무관	김나현 (☎ 044-203-6034)	

교육부 2020년도 예산 77조 3,871억 원 확정

- ◆ 2019년 본예산 74조 9,163억 원 대비 2조 4,708억 원 증가
- ◆ 고교무상교육(6,594억 원), 7년 만에 누리과정 지원단가 2만원 인상, 교육급여지원금 확대(1,016억 원) 등 학생·학부모 교육비부담 경감
- ◆ 대학혁신지원사업(8,031억 원), 두뇌한국(BK)21사업(3,840억 원),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(719억 원) 등 고등교육재정확충 및 학종 공정성 강화 예산 증액 편성
- ◆ 고졸취업연계장려금지원(1,107억 원), 전문대학혁신지원(3,908억 원) 등 고졸취업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예산 증액 편성

[교육부 본예산 확정]

-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2020년도 교육부 예산을 국회 심의·의결을 거쳐 2019년 본예산 74조 9,163억 원 대비 2조 4,708억 원 (3.3%) 증가한 77조 3,871억 원으로 확정하였다고 밝혔다.
- 2020년도 예산 77조 3,871억 원은 ①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학생·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교육비 투자 확대, ②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확충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, ③ 직업계고 활력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.

[중점 편성내용]

□ 2020년 교육부 예산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【첫째】 고교무상교육, 누리과정 등 교육비 투자를 확대하여 학생·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

① 먼저, 2020년 고2·고3학생(약 88만 명)을 대상으로 고교 단계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고 6,59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다.

※ 고교무상교육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고교 교육비부담 경감
→ 가계 가처분소득 월 13만 원이 증대되는 효과(2019년 최저임금 기준 월 16시간 근로소득 적용)

② 또한, 저출산 시대 **학부모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 부담을 경감**하고, 유아교육에 대한 **국가책임을 확대**하기 위해 '13년 이후 동결되어 온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7년 만에 처음으로 **2만원(22만원→24만원, 9.1%)** 인상한다.

- 이로써 유치원,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~5세 모든 유아(2020년 기준 119.9만 명)가 생애 출발선에서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※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사업 : (2019년) 3조 8,153억 원 → (2020년) 4조 316억 원 (+2,163억 원)

※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 1인 기준 학부모지원금(31만원) : 누리과정지원금(24만원) + 방과후과정비(7만원)

③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가구 초·중·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급여 지원금을 확대*하여, 저소득층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더욱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* 교육급여(부교재비·학용품비) 지원단가 : (초) 203,000원 → 206,000원, (중) 290,000원 → 295,000원, (고) 290,000원 → 422,200원

④ 아울러 2020년에도 약 4조원의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을 투자하여 학생·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.

※ 맞춤형국가장학금 지원사업: (2019년) 3조 9,986억 원 → (2020년) 4조 18억 원

**【둘째】 국가혁신 성장의 토대가 되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
고등교육 부문 재정확충에 중점**

① 등록금 동결 등으로 어려운 대학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학의 교육·연구력 향상을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.

- 특히 지역 위기와 입학자원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대학의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(지역혁신형, III유형)을 신설(1,080억 원)하였다.

※ 대학혁신지원사업 : (2019년) 5,688억 원 → (2020년) 8,031억 원 (+2,343억 원)

② 혁신성장을 이끌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두뇌한국(BK) 21 플러스 사업을 확대하였으며, 2020년 9월 출범 예정인 4단계 사업의 사업비는 연간 4,080억 원 수준으로, 현재 2,720억 원(3단계)에서 1.5배 (+1,360억 원) 정도로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.

※ 두뇌한국(BK)21 플러스사업: (2019년) 2,967억 원 → (2020년) 3,840억 원(3단계 잔여사업비 및 글로벌 박사양성사업이 포함된 수치)

③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, 「대입공정성 강화방안 (11.28)」의 성공적인 안착과 학생·학부모의 대입 부담 완화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고교 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160억원 증액하였다.

※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: (2019년) 559억 원 → (2020년) 719억 원

- ④ 산학연협력 고도화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대학 내 산학연협력 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혁신 선도대학을 확대하는 등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강화한다.

※ 산학연협력 고도화 사업 : (2019년) 2,925억 원 → (2020년) 3,689억 원

【셋째】 직업계고 활력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

- ① 「고졸취업활성화 방안(19.1.28)」의 일환으로 직업계고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“현장 실습처 발굴 → 현장실습 지원 → 취업 지원 및 장려금 지원 → 후속 지원”으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한다.

※ 중앙취업지원센터운영지원(18억 원, 신규), 기업현장교육지원(205억 원),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지원(1,107억 원),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개발(18억 원, 신규) 등 총 4개 사업에 1,348억 원 지원

- ② 전문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전문대학이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평생직업교육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.

※ 전문대학혁신지원: (2019년) 2,908 → (2020년) 3,908억 원 (+1,000억 원)

- ③ 또한, 전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기술인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「전문기술인재장학금(우수장학금)」이 신설되어(71억원), 약 1,000명의 전문대학 우수 재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-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“7년 만에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인상되고, 고교무상교육 국고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.”고 하며, “2020년 예산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, 대학 경쟁력 강화, 대입 공정성 확보 등에 꼭 필요한 증액이 이루어진 만큼,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”고 강조하였다.



1 총 지출 규모

- 2019년 본예산 74조 9,163억 원 대비 2조 4,708억 원 증액된 77조 3,871억 원으로 확정

< 2020년도 교육부 예산 개요 >

(억원, %)

구분	'19분예산 (A)	'20예산 (B)	'19대비 증감 (C=B-A)	증감률 (C/A)
□ 총지출	749,163	773,871	24,708	3.3
(교부금, 유특 제외)	158,522	179,832	21,310	13.4
○ 예산	702,360	721,555	19,195	2.7
○ 기금	46,803	52,316	5,513	11.8
【교육분야】	703,353	723,165	19,812	2.8
▪ 유아 및 초·중등교육	593,832	604,126	10,294	1.7
(지방교육재정교부금)	552,488	553,722	1,234	0.2
(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)	38,153	40,316	2,163	5.7
▪ 고등교육	100,806	108,331	7,525	7.5
▪ 평생·직업교육	7,435	9,383	1,948	26.2
▪ 교육일반	1,280	1,326	46	3.6
【사회복지분야】	45,811	50,705	4,894	10.7
▪ 기초생활보장(교육급여)	1,317	1,016	△301	△22.9
▪ 공적연금	44,494	49,689	5,195	11.7

※ 교육부 소관예산은 교육분야 예산과 사회복지분야 예산으로 구성

2 주요 사업 현황

【유아 및 초중등 부문】

- (지방교육재정교부금) 내국세 세수연동 등에 따라 '19년 본예산 55조 2,488억 원 대비 1,234억 원(0.22%) 증액된 55조 3,722억 원 지원

- **(유아교육비·보육료 지원)** 학부모의 유아학비·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고, 영·유아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정(2020년 3월부터 「2019 개정 누리과정」 적용 예정)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단가를 2만원 인상(22→24만원)하여 총 4조 316억 원을 편성

※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사업 : (2019년) 3조 8,153억 원 → (2020년) 4조 316억 원 (+2,163억 원)

<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 내역 >

◆ **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사업**

- **총사업비** : (2019년) 3조 8,153 → (2020년) 4조 316억 원(2,163억 원)
 - 유아교육비 지원(유치원, 교육세)
(2019년) 1조 7,628 → (2020년) 1조 8,645억 원(1,017억 원)
 - 보육료 지원(어린이집, 국고)
(2019년) 1조 9,812 → (2020년) 2조 814억 원(1,002억 원)
 - 어린이집 교사처우개선
(2019년) 713 → (2020년) 857억 원(144억 원)

- **(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)** 장애학생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전국단위 모집의 국립대학교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 2교(부산대, 공주대) 설립을 위한 공사비 138억 원 반영

※ 국립대학부설특수학교 설립(2022년 개교 예정) : (2019년) 27억 원(설계비) → (2020년) 138억 원(공사비)

【고등교육 부문】

- **(대학혁신지원)** 대학이 미래사회·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·연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혁신지원을 대폭 확대

※ 대학혁신지원사업: (2019년) 5,688억 원 → (2020년) 8,031억 원 (+2,343억 원)

- 지자체-지역대학이 공동의 노력으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자율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형(시범 3개 지역) 대학혁신 지원유형(Ⅲ유형)을 신설(1,080억 원)

- **(국립대학육성사업)**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서 고등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, 기초·보호학문 육성 및 지역별 강점분야 연구·교육 역량 강화, 지역인재 양성 등을 집중 추진(2020년, 1,500억 원)
- **(산학협력력 고도화)** 대학 내 산학협력력 문화를 조성하여 대학이 혁신성장을 이끌 인재양성 및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력 고도화 사업을 대폭 확대(2,925→3,689억 원, +764억 원)
- **(두뇌한국(BK)21)** 우수 인력양성 규모를 연간 1.7만 명에서 1.9만 명으로 2,000명 확대하고, 석·박사생이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장학금 지원단가를 인상(석사 월 60 → 70만 원, 박사 월 100→130만 원)
 - 두뇌한국21사업의 연간 사업비는 당초 2,720억 원 수준(3단계)에서 4,080억 원(4단계)으로, 1.5배(+1,360억 원) 정도로 확대
 - ※ 두뇌한국21 플러스사업 : (2019년) 2,967억 원 → (2020년) 3,840억 원
- **(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)** 학생·학부모의 대입 부담 완화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지원
 - ※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: (2019년) 559억 원 → (2020년) 719억 원
- **(대학 강사 처우개선 등)** 강사법 시행에 따른 방학중임금·퇴직금 지원, 국립대 전업-비전업 강사 간 격차해소를 위한 처우개선비 반영
 - 강사법 시행(2019년 8월)으로 대학 내 강의 기회를 얻지 못한 강사 및 신진연구자 등에게 대학 평생교육원에서의 강의 기회를 제공
 - ※ 국립대학 강사처우개선 : (2019년) 1,329억 원 → (2020년) 1,517억 원
 - 사립대학 강사처우개선 : (2019년) 217억 원 → (2020년) 610억 원
 - 대학평생교육원 강좌지원(신규) : (2020년) 49억 원
- **(인문사회기초연구)** 인문사회분야 박사급 연구자들이 단절 없이 연구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안전망 구축을 강화
 - ※ 인문사회 기초연구: (2019년) 1,617억 원 → (2020년) 1,851억 원 (+234억 원)

- **(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)** 박사후연구자 연구지원(817→1,194개 과제), 대학중점연구소 지원(90→114과제), 창의·도전 및 보호연구지원(1,627→2,327개 과제) 등 대학의 이공학 학술연구지원 확대
 - ※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사업: (2019년) 2,177억 원 → (2020년) 3,374억 원(+1,197억 원)
- **(학술연구 기반 지원)** 대학의 학술자료 라이선스 구독지원 등 학술자원 공동 활용 예산을 증액하고, 대학 연구윤리 지원센터 등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을 지원
 - ※ (학술자원공동관리체계구축사업) 90→155억 원, (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) 10→12억 원
- **(맞춤형 국가장학금)** 2020년에도 약 4조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학생·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대학등록금 부담경감 추진
 - ※ 맞춤형국가장학금 지원 : (2019년) 3조 9,986억 원 → (2020년) 4조 18억 원(+32억 원)

【평생·직업교육 부문】

- **(전문대학혁신지원)** 전문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전문대학이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평생직업교육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
 - ※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: (2019년) 2,908 → (2020년) 3,908억 원 (+1,000억 원)
- **(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)** 직업계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 및 지자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장실습 기업 발굴, 업무협약 체결 등 지원
 - ※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(신규) : 18억원
- **(현장실습교육지원)** 안전하고 질 높은 현장실습 운영을 위해 기업에 현장실습교육 지원금 지원(20,000개소(기업) x 월 50만원 x 2개월)
 - ※ 현장실습 기업 현장교육 지원 : (2019년) 23억 원 → (2020년) 205억 원
- **(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)** 중소·중견기업 고졸취업자 장려금 지원액 인상(3→4백만원) 및 현장실습 참여 학생 지원금 신설(324억원, 2.7만명(학생) x 월 60만원 x 2개월)
 - ※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지원 : (2019년) 780억 원 → (2020년) 1,107억 원

- **(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개발 등)** 성인학습자의 4차 산업혁명 분야 직무능력함양을 위해 양질의 온라인 미래교육콘텐츠를 개발
 - ※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 콘텐츠개발 및 활용 활성화사업: (2019년) 114억 원
→ (2020년) 135억 원 (+21억 원)
- **(평생교육바우처 지원)**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저소득층 대상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확대
 - ※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: (2019년) 25억 원 → (2020년) 34억 원
- **(한국어능력시험 개선)** 한류 확산 및 국가위상제고에 맞추어 말하기 평가 도입 등 한국어능력시험 개선 추진
 - ※ 한국어능력시험개선 : (2019년) 2억 원 → (2020년) 30억 원
- **(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)** 해외 한국어 보급 및 한국교육원 신설(1개교) 및 이전 지원, 해외 초·중등학교 한국어채택 지원 등 한국어 보급·교육 강화
 - ※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사업 : (2019년) 715억 원 → (2020년) 823억 원

【기초생활보장 부문】

- **(교육급여)** 기초생활수급가구 초·중·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급여 지원금을 확대*하여, 저소득층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더욱 경감
 - * 교육급여(부교재비·학용품비) 지원단가: (초) 203,000원 → 206,000원, (중) 290,000원 → 295,000원, (고) 290,000원 → 422,200원